



김광아 광주시체육회장 직무대행이 지난 9일 양궁 경기가 열리는 예천 진호국제양궁장을 찾아 운송한 광주시양궁협회 상임부회장을 비롯한 광주선수단을 격려한 후 선전을 다짐하는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광주시양궁협회 제공>

역도 나민주·조민재 자전거 김채연 체조 서정원 '3관왕'

102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광주·전남체육 미래 주역들 잇단 낭보

양궁 강민재, 김제덕 돌풍 뚫고 김·서석고 검도 14년 만의 우승
플러 이우진 대회 신, 우수 윤여중·바둑 배찬진·육상 체지훈 김



광주·전남 체육 미래의 주역인 고등부 선수들이 연일 눈부신 선전을 펼치며 '금빛 낭보'를 전하고 있다.

경북 일원에서 열리고 있는 102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한 광주선수단의 첫 금메달은 핀수영에서 나왔다. 지난 8일 여고부 표면100m 경기에서 양현지(광주체고1)가 41초61의 기록으로 광주에 첫 금을 안겼다. 전국체전에 첫 출전한 양현지는 9일 표면50m에서 금메달을 추가하며 차세대 주역으로 부상했다. 남고부 표면100m에서는 심재현(광주체고2)이 광주에 두 번째 금메달을 선사했다.

고진영·임성재, LPGA·PGA 동반 우승...같은 날은 사상 최초

고진영(26)과 임성재(23)가 미국프로골프 남녀 대회를 같은 날 제패했다. 여자 골프 세계 랭킹 2위 고진영은 11일 열린 LPGA 투어 코그니전트 파운더스컵에서 최종합계 18언더파 26타로 우승했다. 고진영은 이 우승으로 자신의 LPGA 투어 통산 10승을 달성했다. 이후 임성재는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슈라이너스 칠드런스오픈에서 최종합계 24언더파 26타로



11일 열린 LPGA 투어 코그니전트 파운더스컵에서 우승을 차지한 고진영이 트로피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AP·연합뉴스

"LPGA 10승 특별해... 소렌스탐 기록 경신도 도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10승을 달성한 고진영(26)이 '전설'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과 타이가 된 '연속 60대 타수 기록' 경신에도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고진영은 11일 막을 내린 LPGA 투어 코그니전트 파운더스컵에서 우승한 뒤 "이번 우승은 LPGA 통산 10승이라 무척 특별하다"면서 "2년을 기다려 이 대회 2연패를 달성한 것도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진영은 첫날 1라운드 8언더파로 선



김재무 전남도체육회장(사진 왼쪽)이 지난 9일 바둑 혼성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배찬진(한국바둑고)에게 금메달을 시상 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검도에서도 뜻깊은 금메달이 나왔다. 단체전에 출전한 서석고는 결승에서 개최지 경북과 접전 끝에 3대2 승리를 거두며 우승을 차지했다. 서석고가 전국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것은 지난 2007년 제88회 광주 체전 이후 14년 만이다. 대회 첫날 자전거 여고부 독주에서 김채연의 첫 금메달로 금빛 행진을 시작한 전남선수단은 대회 이틀째 역도 남고부에서 조민재(전남체고)가 인상 117kg, 용상 140kg, 합계 257kg을 가볍히 들어 올리며 대회 3관왕을 신고했다. 이어 첫 금메달 주인공 김채연이 단체 스피린트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2관왕에 올랐다. 김채연은 10일엔 4km단체추발에서 동메달을, 11일엔 스피린트에서 금메달을 보며 3관왕의 주인공이 됐다.

정상에 올랐다. 이 우승으로 한국 선수들은 PGA 투어에서 통산 20승째를 쌓았다. 2002년 5월 최경주(51)가 컴플렉스에서 처음 우승한 이후 2011년 5월 역시 최경주의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이 10승째였고, 이번 임성재가 20승 이정표를 세웠다. 한국 국적의 선수들이 같은 날 PGA와 LPGA 투어 대회를 동시에 제패한 것은 한국 남자 기준으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상에 올랐다. 이 우승으로 한국 선수들은 PGA 투어에서 통산 20승째를 쌓았다. 2002년 5월 최경주(51)가 컴플렉스에서 처음 우승한 이후 2011년 5월 역시 최경주의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이 10승째였고, 이번 임성재가 20승 이정표를 세웠다. 한국 국적의 선수들이 같은 날 PGA와 LPGA 투어 대회를 동시에 제패한 것은 한국 남자 기준으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열린 PGA 투어 슈라이너스 칠드런스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한 임성재가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50번째 대회서 첫 승, 100번째 대회 2승...하늘이 도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2승을 달성한 임성재(23)가 "첫 우승 뒤 두 번째 우승이 찾아올 것인지 생각이 많았고, 이번 14라운드 연속 60대 타수를 써 내 소렌스탐이 2005년 남긴 역대 최다 기록과 타이틀을 이룰 결정을 내렸다. 임성재는 11일 열린 PGA 투어 슈라이너스 칠드런스오픈에서 최종합계 24언더파 26타로 우승했다. 지난해 3월 혼다 클래식 이후 1년 7개월 만에 2승째를 따낸 임성재는 "첫 우승 뒤 두 번째 우승이 찾아올 것인지 생각이 많았고, 어려웠다"며 "인내심을 갖고 차분히 경기를 계속했는데 이렇게 기회

광주·전남 첫 금 '영광의 주인공'

"다음 목표는 아시안게임 금"

핀수영 광주체고 양현지

"기대했던 것보다 기록이 잘 나와 기쁩니다."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핀수영 여고부에 출전한 양현지(광주체고 1년·사진)가 광주선수단에 첫 금메달을 선사했다.

양현지는 지난 8일 경북 문경 국군체육부대수영장에서 열린 여자19세 이하부 표면 100m 결승에서 41초61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었다. 상승세를 탄 양현지는 9일 열린 표면 50m에서도 금메달을 수확하며 대회 2관왕에 올랐다.

2018년 광주체중 1학년 때 수영선수인 오빠 양혁진(광주체고 3년)의 영향을 받아 핀수영을 시작한 양현지는 타고난 신체조건으로 각종 대회에서 메달을 휩쓸며 일찌감치 차세대 핀수영 기대주로 두각을 나타냈다.

광주체고로 진학한 올 시즌에도 그는 언니들에게 뒤처지지 않는 클래스를 선보였다. 4월 전국선수권대회에서 표면50m 2위(19초98)·혼성계영 200m 1위(1분13초48)를 기록했고 5월 중부핀수영대회에선 표면100m 2위(43초02)·혼성계영 200m 2위(1분12초18)를 차지했다.



지난 6월에는 주니어 국가대표로 선발돼 이탈리아에서 열린 세계청소년핀수영대회에서 기량을 점검하기도 했다. 양현지는 이번 전국체전을 앞두고 지난 7월부터 8월 중순까지 제주도 전지훈련을 통해 기술 보완을 했다. 제주에서 실업팀과 합동훈련을 하며 순발력 향상과 함께 역영 기술과 경기 집중력 등을 배웠다. 세계 대회 참가 경험과 제주 전지훈련의 효과는 이번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이라는 값진 결실을 맺었다. 양현지는 "제주 전지훈련에서 역영 자세와 스타트, 턴 동작 등에 대한 보완 훈련을 했다. 스타트는 힘있고 멀리, 턴은 빠르고 벽을 잘 밟을 수 있도록 동작을 보완한 게 큰 도움이 됐다"며 "내년에는 표면 100m 40초대 내, 표면 50m 18초 초반대로 기록 단축과 전국체전 2관왕이 목표고 향후에는 태극마크를 달고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희중 기자

"올림픽 메달 꿈 이루고 싶어"

자전거 전남체고 김채연

"처음 참가한 전국체전에서 전남선수단 첫 금메달의 주인공이 돼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자전거 여자 19세 이하부 500m독주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김채연(전남체고 2년·사진)의 소감이다. 김채연의 값진 금메달은 기록 향상 의지와 착실한 동계훈련의 결실이었다.

2018년 전남체중 2학년 여름방학 때 투척부로 활동하다 자전거부로 옮겨 처음 페달을 밟은 그는 이듬해 4월 제36회 대통령기 전국사이클대회에서 여중부 500m독주경기 은메달과 200m기록경기 은메달로 생애 첫 메달을 목에 걸며 자전거의 즐거움을 맛봤다.

김채연은 2019년 6월 KBS 양양 전국사이클선수권대회에서 1km개인추발에서 중학교부별 신기록(1분16초737)과 함께 대회신기록을 세웠고, 500m기록경기에서도 대회신기록(37초546)을 작성하며 자전거 유망주로 우뚝 섰다.

2020년 전남체고로 진학한 김채연은 긍정적인 멘탈과 타고난 경기 운



영 감각으로 6월 2020 KBS 양양 전국사이클선수권대회 500m 독주경기 2위(37초327), 7월 제49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학생사이클대회 1km 대회신기록(26초228)으로 2위를 차지하며 꾸준함을 보였다. 김채연은 올 시즌을 대비해 기록 향상을 목표로 삼고 동계훈련을 착실히 소화했다. 특히 스타트 스피드 향상을 중점에 두고 모뎀발 인터벌, 점프 등 체력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기록 단축을 위해 개인 인터벌 등 실전훈련에도 구슬땀을 흘렸다. 그가 흘린 땀은 올 시즌 여고부 랭킹 1위라는 결실로 이어졌다. 김채연은 "이번 체전 500m독주에서 비로 인해 목표였던 36초1보다 0.4초 뒤진 기록이 나와서 아쉬웠지만 동계훈련때 열심히 했던 게 금메달로 이어졌다"며 "앞으로 올림픽에 출전해 시상대 위에 서는 게 목표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희중 기자

프로배구 광주경기 관중 20% 추진

AI페퍼스 창단, 준PO 실시

한국배구연맹(KOVO)이 2021-2022 시즌 V리그에서도 '주심 자체 비디오 판독'을 도입한다. KOVO는 V리그 개막을 앞둔 11일, 올 시즌 달라지는 점을 소개하며 주심의 요청에 의한 '셀프 비디오 판독 도입' 소식을 전했다.

KOVO는 8월에 열린 2021 의정부 도드람배구대회에서 '주심 셀프 비디오 판독'을 시험했고, V리그 정규리그에서도 활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컵대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서브를 위해 공을 굴러주는 볼리트리버와 코트를 닦는 킥 파파도 V리그에서는 다시 볼 수 있다. 여자부 7번째 구단 페퍼저축은행의 창단으로 V리그 일정은 더 촘촘해졌다. 정규리그 여자부 팀당 경기 수가 30경

기에서 36경기로 늘어났다. 또한, 3·4위 간 준플레이오프 실시로 포스트시즌이 확대됐다. 여자부는 지난 시즌 월요일과 목요일에 휴식했지만, 올 시즌에는 월요일을 제외한 주 6일 동안 경기를 펼친다. 광주를 연구지로 정한 페퍼저축은행의 홈경기에서는 팬들의 함성도 들을 수 있다. KOVO는 "남자부 삼성화재, 여자부 KGC 인삼공사가 홈으로 쓰는 대전, 페퍼저축은행의 홈 광주 경기는 정부 지원에 따라 수용 인원의 최대 20%까지 관중 입장이 가능하다"며 "연맹은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 등 새로운 방침에 맞춰 관중 입장 매뉴얼을 새롭게 구축하고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2022 V리그는 16일 남자부 대한항공-우리카드, 오후 4시 GS칼텍스-흥국생명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6개월여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연합뉴스

벤투호, 오늘 오후 10시30분 월드컵 최종에선 4차전 이란戦